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 인민무력부 혁명사적관에 있는 《최고사령관과 전우관》을 찾으시고 조선인민군 11월 2일공장을 현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충직한 혁명전우이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생을 바친 조선로동당과 국가, 군대의 저명한 활동가인 조명록동지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인민무력부혁명사적관에 있는 《최고사령관과 전우관》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최고사령관과 전우관》에 전시된 조명록동지의 사진들과 유품들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11월 6일은 조명록동지가 우리결을 떠난 날이라고 하시면서 그와 영결하던 때가 엇그제같은데 벌써 3년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명록동지는 위대한 장군님의 귀중한 혁명동지, 혁명전우였다고 하시면서 조명록동지가 서거한 날을 맞고보니 그가 못 견디게 그리워 이곳을 찾아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부무정신, 투철한 혁명적원칙성, 고지식한 품성으로 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아오던 조명록동지를 영원히 잊을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과 혁명, 조

국과 인민앞에 세운 조명록동지의 업적은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최고사령관과 전사들이 하나로 굳게 뭉쳐 백승을 떨쳐온 우리 혁명무력의 영광스러운 력사, 선군혁명력사가 집약되어 있는 《최고사령관과 전우관》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 끝없이 충직하였던 혁명전사들의 사진앞에서 곁을 멈추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최고사령관과 전우관》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을 바쳐 정을 주고 사랑하시였으며 당과 수령에게 자기 운명의 피줄을 잇고 우리 당을 총대로 옹호보위한 전우들이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혁명이 모진 시련과 난관을 뚫고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는것은 최고사령관과 총대전우들 사이에 맺어진 혼연일체, 혁명적동지애가 있었기때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하였던 인민군대의 지휘성원들은 최고사령관과 사상도 뜻도 숨결도 운명도 같이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들은 우리 혁명의 자랑이고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인 참다운 동지애의 초석을 굳건히 다지고 인민군대를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 한생을 다 바친 결결한 혁명가, 참된 전사들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혁명의 길에서 생사운명을 같이한 전우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는 혁명을 추동하고 전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은 앞으로도 혁명적동지애의 위력으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혁명전우들에 대한 우리 당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력사를 보여주는 교양거점담게 《전우관》을 새로 잘 꾸릴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우관》은 수령과 전사들사이에 맺어진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혈연적관계와 피로써 개척된 조선혁명의 동지애의 력사, 일심단결의 빛나는 전통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교양장소로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생을 바친 혁명전사들의 신념과 의리가 어떤것이며 그들의 업적이 어떻게 빛나는가를 보여 줄수 있게 《전우관》을 꾸림으로써 그

들의 고결한 사상정신세계를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깊이 체득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11월2일공장을 현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연혁소개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았던 백두산3대장군들의 뜨거운 사랑속에 결어온 공장의 발전로정을 감회깊이 추억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 공장에 현대적인 간식생산공정까지 꾸려짐으로써 한평생 군인들의 먹는 문제를 두고 마음써오신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념원을 풀어드릴수 있게 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이 군인들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지니고 맡겨진 생산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사랑작업반, 과자작업반을 비롯한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기업관리와 경영활동을 짜고드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종합소중실에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현대적인 감시, 조정, 지령체계를 철저히 세워 생산공정의 컴퓨터화, 무인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과자맛을 친히 보아주시면서 원료배합과 숙성, 반죽, 구이로의 온도조절을 잘 하여야 과자의 질을 더욱 높일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식료공장에서 제품의 위생안전성을 보장하는것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포장공정을 자동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배출체계를 잘 세우는것을 비롯하여 생산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며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넉넉히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군인들에게 맛있고 영양가높은 간식과 식료품을 떨구지 않고 공급하자는것이 당의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공장의 생산능력이 확장된데 맞게 생산량을 늘이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로동계급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시고 공장이 수행해야 할 단계별목표를 제시하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참가자들, 조선인민군 제4차 적공일군 열성자회의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11월 14일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가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불타는 애국심을 지니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과학탐구의 길을 이어가고있는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는 나라의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나라를 지식경제강국으로 전변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하시면서 높은 열의와 적극적인 참가밑에 자기 사업을 원만히 수행한 대회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조선로동당과 조국앞에 지닌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과학기술성파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앞당기며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떨치는데 적극 기여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제4차 적공일군열성자회의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참가자들은 적공일군열성자회의를 마련해주고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주시였으며 오늘은 자기들과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며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인민군대의 적공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는 전체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대안의 적공일군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보건말건 당과 수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사회주의제도옹위의 전초선을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참가자들이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안고 자기들앞에 맡겨진 무겁고 영예로운 사명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사옹위!》 구호의 합성이 터져올라 장내를 진감하였다.

본사기자

## 민주파괴, 민생파탄의 주범-박근혜독재에 맞서 싸우자

### 민주로총 로동자 5만명 서울에서 반《정부》투쟁

남조선의 민주로총 로동자 5만명이 서울에서 당국의 반역통치를 반대하여 투쟁을 전개하였다.

10일 서울광장에서 《2013년 전국로동자대회》가 있었다.

철도로조 위원장 김명환은 박근혜가 선거공약을 파기하고 철도와 전기, 가스 등에 대한 민영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모든것을 《유신》 시기로 되돌려놓은 박근혜 《정부》

는 민주파괴, 민생파탄의 주범이라고 그는 단죄하였다. 공무원로조 서울지역본부 장 권재동은 최근 감행되는 공무원로조에 대한 탄압은 정보원의 불법선거개입사건으로 높아가는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것이라고 하면서 당국이

아무리 발악해도 진실은 감출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전교조 총부지부 교원 소중현은 박근혜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날로 확대되고있다고 하면서 참교육실현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것이라고 강

조하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장 리광석은 농민들이 박근혜의 《유신》 독재를 그대로 부활시키고있는 박근혜독재에 맞서 싸울것이라고 엄명하였다.

《정부》가 로동자들의 기본 권리를 계속 침해할 경우 민주로총은 재벌중심의 통치를 거부하는 투쟁을 강도높게 벌려나갈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모든 진보세력이 하나로 뭉쳐 민주파괴, 공약파괴,

로동탄압에 맞서 투쟁할것을 그는 호소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시위행진을 벌였다. 이날 공안당국은 120개 중대 1만여명의 경찰들을 내몰아 물대포를 쏘아대며 살벌한 폭압분위기를 고취하였다.

이에 앞서 9일 여의도에서 비정규직철폐투쟁이 있었다. 민주로총은 불법으로 권력의 자리를 차지한 박근혜가 선거공약을 어기면서 《유신》 독재통치를 부활시키고 로동자들을 탄압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업주측의 착취와 학대는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로동자들은 생계조차 유지할수 없는 보잘것없는 임금을 받으며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고통을 겪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민주로총은 비정규직철폐, 임금인상 등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절대로 투쟁을 멈추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 인간사랑, 여성존중의 정치

오늘은 어머니날이다. 조국을 받드는 길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영웅어머니들과 아들딸들을 많이 낳아 키우고있는 모성영웅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후대교육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교민, 연구사어머니들 그리고 사회와 인민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한 어머니들은 물론 이 나라의 어머니들모두가 기쁨의 하루, 행복의 하루를 보내며 나라의 축복, 자식들의 축하를 받고 있는것이다.

예로부터 어머니만큼 거룩하고 신성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존재는 없다. 어머니는 뜨거운 사랑의 힘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아름답고 강하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사랑처럼 열화같은 진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은 없다. 그 사랑은 한계도 없고 대가를 모른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고싶은 심정으로 자식을 보살펴주고 죽음도 서슴없이 내내 내 것이 어머니이다.

하지만 그 어느 시대에서나, 그 어느 정치하에서나 어머니들이 자기의 존엄을 빛내일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라를 잃으면 제일먼저 짓밟히는것이 모성의 권리이며 민족이 수난을 당하면 그 설움과 아픔을 제일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어머니들이다.

돌이켜보면 나라없던 지난날 봉건의 질곡과 일제의 쇠사슬에

얽여든 눈물로 치마자락을 적서 야만 했고 제 이름 석자도 가질 수 없었던것이 이 나라 어머니들의 처지였다. 자신들의 불우한 운명을 숙명처럼 감수해야만 했던 이들이 절세위인들의 여성존중의 정치하에서 사회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보람찬 삶을 향유하게 되었으며 자신들의 미래를 함께 되으며 자녀들의 미래를 기쁨속에 내다보며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해방후 남부평등권법령을 발표하도록 하시어 여성들을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메고나가는 당당한 주인으로 내세워주시었으며 주제 50(1961)년 11월에는 세상에 일찍이 어머니의 날을 제1차 전국어머니대회를 소집하도록 하시었다.

물소 대회에 참석하신 어머니수령님께서는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라는 역사적인 연설도 하시고 사회주의건설과 자녀교양에 몸바치고있는 어머니들의 수고와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었으며 부강조국건설에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크나큰 고무와 믿음도 주시었다.

어머니수령님의 숭고한 뜻에서 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여성들과 후대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후한한 헌신으로 어머니들이 사회와 력사앞에 지닌 임무를 다해나가도록 길을 열어주시었다. 두메산골의 도로관리원어머니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아가울것을 지니지 않는 후대만을 지니지 않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평양산원과 김정숙악아소를 비롯한 현대적인 산원들과 락아소, 유치원들을 온 나라 곳곳에 건설하도록 하시었고 귀중한 보약까지도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에게 아낌없이 돌려 주시었다.

여성들과 어머니들을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역량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적작품 《여성들은 혁명과 건설을 떠맡고나가는 힘있는 역량이》를 발표하시어 그들이 사회활동에서 자기의 본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시었으며 사회에 여성존중의 화원이 만발하도록 하시었다.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엄혹한 나날에도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국가적인 보호와 배려가 뜨겁게 미치도록 세심하게 보살펴주시신 장군님이시이다.

연예사의 탐과 정성이 없이 아름다운 꽃을 기대할수 없듯이 어머니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조국의 미래를 후대들로 보살펴주시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교묘한 인덕을 떠나 조선여성들과 어머니들이 주시는 빛나는 삶과 존엄, 크나큰 공지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두메산골의 도로관리원어머니

가 못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진행된 음악회 《여성들은 꽃이라네》는 그이의 깊은 관심과 기대속에 각계층 어머니들과 여성들을 위해 마련된 인상깊은 공연이었다. 여성들과 어머니들의 건강증진을 넘어하시는 그이의 사랑과 보살핌속에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가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되었다. 어머니수령님께서 제1차 전국어머니대회에서 연설하신 날을 어머니날로 제정하도록 하고자 하시는 뜻이 어머니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조국의 미래를 후대들로 보살펴주시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교묘한 인덕을 떠나 조선여성들과 어머니들이 주시는 빛나는 삶과 존엄, 크나큰 공지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본사기자 주일봉

사람들은 어머니라는 말보다 더 신성하고 친근하고 소중한 부름은 없다고 한다. 누구나 어머니품에서 생이 시작되고 그 슬하에서 성장의 길을 걷게 된다. 명인이나 위인의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생전에 자주 어머니에 대해 말씀하곤 하시었다.

우리 어머니는 성격이 부드럽고 온화하시었고 성품이 강직하시었다. 평생 자식들에게 꾸지람 한번 한 일이 없었으며 가정에서는 물론 이웃간에도 말다툼 한번 한 일이 없었다. 매사에 심중하고 원칙이 강하시었다.

강반석녀사께서는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의 반일투쟁을 뒤받침하고 반일독립운동자들의 시종도들면서 살림을 떠메느라 생활에서 고생을 많이 겪으시었던만큼 조금도 내색하지 않으시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 너무도 일찍 세상을 떠나셨을 때에도 자제분들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시었다. 김형직선생님의 유언대로 수령님을 중학까지 공부시켜주시고 선생님께서 남긴 선전 투쟁자료를 물려주시었으며 아드님께서 애국의 길에 나서도록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모진 고난과 신변의 위협도 무릅쓰고 그이의 혁명활동을 적극 도우신 강반석녀사이다. 수령님께서 어머니에 대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대를 이어가

며 써주시라도 기어이 나라의 광복을 이룩해야 한다는 백철불굴의 혁명정신을 한어준 스승이었다면 어머니는 일단 혁명을 시작 한 사람은 인정에 끌리거나 결단 눈을 팔지 말고 끝장을 볼 때까지 오로지 목적달성을 위해서만 노력해야 한다는 리치를 깨우쳐준 고마운 선생이었다고 회고하시었다.

성품에서 외유내강하시었고 가정의 대, 애국의 대를 키우는데서 그 무엇보다도 비길데 없는 업적을 남기신 강반석녀사의 생애는 참으로 고귀하다.

영웅의 뒤에는 그를 낳아 키운 다심하고 자애로운 어머니가 있다.

수령님의 추억의 갈피에는 자기의 힘과 지성으로 나라의 독립과 진보, 부강변영을 위한 애국의 길에 자식들을 내세운 이 나라 유명무명의 어머니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고결한 도덕의 세계가 비껴있다.

어머니수령님께서 항일전에 나서셨던 마동회투사의 어머니를 자신께서 아들을 대신하여 모시겠다고 하시며 온갖 성의를 다해 돌보신 육친의 정과 같은 사랑의 이야기를 사람들은 지금도 잊지 못하고있다. 아들딸, 며느리를 항일전쟁에 내세운 그의 미지를 애국적소행으로 높이 평가하시며 각근히 보살펴주시었고 그가 세상을 떠

났을 때에는 영웅을 셋이나 키워낸 어머니라고 하시며 그의 유해를 혁명렬사릉에 안치하도록 하신 수령님이시이다.

가정과 사회의 화복과 행복, 나라의 부강변영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어머니들을 위해 전국어머니대회를 열도록 하시고 후대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훌륭히 키워주며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메는 힘있는 역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시건은 수령님의 여성중시, 여성존중의 정치의 발전이었다.

평양의 천리마동상에도 나라의 절반일 울 떠맡고 조국의 전진에 이바지해는 여성들을 상징하여 녀성천리마기수의 모습이 형상되어있다.

여성들을 사회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믿고 내세우신 어머니수령님의 정치는 위대한 장군님에 의해 이어졌고 오늘에 이르는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계승되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미재관, 후대들을 그대로 이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해 전국적, 전사회적으로 어머니들의 편외와 리익을 최우선시하는 것이 나라의 혁명중대사로 되고있으며 어머니들과 아이들을 위한 창조물들이 제일먼저, 제일 높이 솟아오르고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경, 추억을 담아 감사와 축하를 드리는 어머니날 11월 16일도 있는것이다.

리철희

## 아름다운 추억

적을 남기신 강반석녀사의 생애는 참으로 고귀하다. 영웅의 뒤에는 그를 낳아 키운 다심하고 자애로운 어머니가 있다.

수령님의 추억의 갈피에는 자기의 힘과 지성으로 나라의 독립과 진보, 부강변영을 위한 애국의 길에 자식들을 내세운 이 나라 유명무명의 어머니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고결한 도덕의 세계가 비껴있다.

어머니수령님께서 항일전에 나서셨던 마동회투사의 어머니를 자신께서 아들을 대신하여 모시겠다고 하시며 온갖 성의를 다해 돌보신 육친의 정과 같은 사랑의 이야기를 사람들은 지금도 잊지 못하고있다. 아들딸, 며느리를 항일전쟁에 내세운 그의 미지를 애국적소행으로 높이 평가하시며 각근히 보살펴주시었고 그가 세상을 떠

## 행복의 창조자

에로부터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간주하여왔고 군대를 원호하는것은 백성의 응당한 도로로 여겨왔다.

그러나 오늘 공화국에서 군대가 나라를 지킬뿐아니라 인민을 돕고있으며 그들의 복리를 위해 피와 땀도 서슴없이 바치고있다. 남조선의 한 동포가 《북의 경제발전전략》이라는 글에서 《서해갑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안변청년발전소, 금강동굴, 구월산유원지, 평양-향산관광도로건설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건설현장은 군대가 이끌었다. 북에서 군대는 권력을 가지고 국가를 지배하는 집단이 아니라 힘든 공사를 맡아하는 집단이던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세력이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일하는 집단》이라고 평한것처럼 북의 군대는 조국도 수호하고 인민들의 행복도 가꾸어가는 인민의 군대인것이다.

이 땅우에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며 조국의 만년재부를

늘려가는 인민군인들을 보며 사람들은 경애하는 김정일 원수님의 세련된 령도와 업적을 더욱 절감하고있다.

인민군대를 무적의 군대, 인민의 행복을 수호하고 창조하는 인민의 군대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려는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뜻을 이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다.

그이께서는 인민군인들은 부모형제들을 위하여 자기 집 딸안을 꾸리는 심정으로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여 인민의 군대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며 그들을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돌격전의 앞장에 내세워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다.

지난 9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완공단계에 이른 문수물놀이장을 찾았시었다. 완공을 앞둔 문수물놀이장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인민군대에 과업을 주면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이 창조된다고, 그래서 인민군대에 임무를 줄 맞이했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인민군대가 맡고있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구마다에서 날마다 새로운 기적이 창조되고있다고, 이런 군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긍지이며 최고사령관의 자량이라고, 인민군대를 믿고 물놀이장을 일떠세울것을 결심하기 잘했다는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었다. 그런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있기에 인민군장병들은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강성국가건설에서 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할수 있었다.

지난해에 창건된, 인민국장, 프라인민유원지,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 평양인속공원, 통일거리운동센터,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를 비롯한 기념비적건축물들을 훌륭히 일떠세운 인민군인들은 올해에는 과학자, 교 육자들을 위한 현대적인 실험집들과 유류야동병원, 류경구강병원,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를 세계적인 수준에서 완공하여 인민의 기쁨을 더해주시었다.

지금도 인민군장병들은 이 땅우에 기어이 사회주의문명국을 일떠세우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마식령스키장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에서 인민의 군대,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자기 성스러운 사명과 본분을 다하고있다.

본사기자 김강철

공화국의 약동하는 현실이 국제사회의 초점으로 되고있다.

지난 6월 베트남의 인터넷 통신 전자 《연광의 새로 온 현대적인 건축물들을 부감하면서》라는 제목으로 공화국을 소개하였다.

통신은 최근 조선의 수도 평양에 국제사회의 주목을 끄는 새롭고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많이 건설되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는 유선중과 유선암을 비롯한 녀성질병들의 예방과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의료봉사 및 과학연구기지이다.

여기에는 몇개 나라밖에 없다는 다목적렌트진과 최신형의 CT, 초음파진단, 심전도실비들이 장비되어있다. 특히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실현되어 전국의 녀성들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과 유선 질병들의 조기진발 및 예방사업이 진행되고있다.

통신은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롤러스케이트장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였다.

중국의 《환구시보》도 《세계일등급인 조선의 물놀이장》이라는 제목으로 공화국 주재 특파기자의 글을 실었다.

## 서방의 선전과 다른 조선의 현실

— 외국인들의 반향 —

글은 풍겨수려한 대동강반에 또 하나의 대표적인 창조물인 문수물놀이장이 일떠섰다고 하면서 문수물놀이장은 야외물놀이장과 종합적인 실내물놀이장, 실내체육관 등 여러 시설들이 갖추어져있어 사람들이 사계절 마음껏 즐길수 있다고 전하였다. 글은 계속해서 이곳은 찾아오는 인민들에게 더없는 환희와 웃음을 가져다주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김강철물미처럼 대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순간 안겨오는 긴장감과 쾌감, 수조에서 긴장을 풀고 물결을 따라 흐를 때의 만족감, 인공폭포가 쏟아져내리는 명산의 모양을 따서 쌓은 아름다운 산천을 감상하는 느낌 등이곳에서의 체험은 외국의 그 어느 대형물놀이장에 조금도 짝지 않는다.

서방언론의 외국 보도만을 들던 외국인들은 거창한 창조와 변혁속에 발전하는 공화국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나서 백번 들는것보다 한번 보

것이 낫다고 말한다. 국제농업 및 식료근로자 동맹 총서기는 체류기간 조선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토로하였다.

《보고 느낀 모든것이 상상을 초월하였다. 조선의 현실은 서방언론들이 떠들고있는것과는 너무도 판이하다.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부무하고 근로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

것이 조선의 현실이다. 조선의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하고있는 비결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참관지나에서 열렬한 조국애를 지니고 생활과 건설에서 기적을 창조해가는 조선인민의 투쟁모습을 직접 목격하였으면 그들의 불굴의 정신력에서 큰 교훈을 받았다. 지금 이 시각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공화국을 찾아오고있으며 조선의 참현실을 뼈부로 느끼고있다.》

프랑스 헬리오리스트레앙 본사기자



사람들에게 환희와 웃음을 안겨주는 문수물놀이장 실내물놀이장의 일부

## 마식령스키장은 겨울을 부른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부르는 가을철은 어느덧 끝나가고 탐스러운 열매와 푸른 잎새로 풍성하던 나무가들도 앙상해지는 계절이 왔지만 이 땅에는 다가올 겨울의 찬란, 겨울의 환희가 한껏 차넘치고있다.

불과 한해전까지만 하여도 수림에 뒤덮이고 사람들의 인창도 드물던 마식령지구에 지금은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스키장이 자기의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있다.

인민들에게 분명하고 행복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한 한씩 마음써오신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사랑속에 최단기간내에 세인을 놀래우며 일떠서는 마식령스키장은 환희의 겨울을 부르고있다.

건설이 한창이던 지난 5월말 마식령스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말도 넘기 힘들어 쉬어가라는 령이라고 하여 마식령이라고 불리우는 산발들에 1년도 안되는 사이에 수십만㎡의 면적에 총연장길이 11만11m에 40~120m의 폭을 가진 초급스키주로, 중급스키주로, 고급스키주로를 닦아놓는데서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스키를 탈수 있는 기간이 오래고 교통조건도 편리한

마식령스키장은 명당자리에 자리잡고있다고 하실 때 그이의 심중에는 벌써 이곳에 와서 마음껏 체력도 단련하고 자연경치도 부강하면서 행복을 누릴 인민들의 모습이 막 자라있었다.

그후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8월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비약의 열풍이 휘몰아치고있는 마식령스키장건설장을 찾아주시었다. 원수님께서서는 2개월 남짓한 기간에 몰라보게 변모된 마식령스키장을 돌아보시며 사소한 빈틈도 없는 완전무결한 스키장으로 건설할데 대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계절류금의 스키장을 건설하여 인민들과 청소년들에게 더욱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줌으로써 마식령지구에서 사회주의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자고 뜨겁게 호소하신 원수님이시이다.

인민들이 먼 후날에도 덕을 보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이며 문명국의 상징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완공의 기쁨을 앞당길수 있는 현명한 방안을 다 밝혀 주신 그이의 현치지도에 무한히 고무된 건설자들은 마

식령전역에서 모든 대상건설을 끝내고 산골짜기 나고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는 회한 연 스키장의 체모를 갖추어 놓았다.

오늘의 대고진군건설에서 마식령지구건설을 앞세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뜻을 받들어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마음과 발걸음이 마식령으로 달려는 속에 세인을 경탄케 하는 눈부신 기적이 창조되고 마식령에는 몇쟁이스키장이 일떠서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난 11월 2일 현장을 찾으신어 건설현장이 이룩한 놀라운 성과를 보시면서 마식령스키장건설을 군대에 맡기기를 정말 잘하였다고, 인민군대가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마식령수도》라는 새로운 시대를 이 인민군대에 의하여 더욱 빛나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이런 군대를 가지고 있는것은 우리 땅의 긍지이고 자량이라고 높은 처하를 주시었다.

마식령스키장에서 보게 되는 건설자들의 애국심은 위훈의 땀에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건설자들이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충할수 있게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신

원수님의 애국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닦아놓은 스키장의 휴 한중, 조약돌 하나에도 애국의 미담은 그대로 비껴있는것이다.

완공을 눈앞에 둔 그날 첫눈이 내린 대화봉을 바라보시며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마식령스키장의 산발들에 련련히 굽이치고있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10월 15일에 대화봉에 첫눈이 내리었고 11월 중순부터 눈이 본격적으로 내린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마식령스키장이 겨울을 부르고 겨울이 마식령스키장 완공을 기다린다고 말씀하시었다.

마식령스키장이 겨울을 부르고 겨울이 마식령스키장 완공을 기다린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과 발기에 의하여 시작된 마식령스키장건설이 이제는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렬한 조국애, 인민사랑이 차넘쳐 겨울의 찬바람도 따뜻하게 느껴지는 조국산입니다.

마식령스키장건설의 완공으로 이 땅에 오는 겨울은 더욱더 환희로운 계절로 될 것이다.

마식령스키장이 겨울을 부른다!

본사기자 리경월

대동강리합공장, 남흥천년 화학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생산기지를 다녀본 소감을 말한다면 하나같이 안팎이 일대기적 정경하고 번듯하며 청신하다는것이다. 생산공정은 현대적이고 성능좋은 설비들로 갖추어져있고 건물이나 구내의 면모는 흡사 휴양지나 문화기관 같은 곳을 련상케 한다. 한편 창건거리, 황진온천마을과 같은 거리들과 주택지구들, 광복거리공원, 개선천년 공원유희장을 비롯하여 도시와 거리, 마을들을 봐도 건축미에서 이채롭고 특화조성과 편의시설같은 생활조건에서도 흠잡을데가 없다.

몇달전 평양기조식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서는 공장 건설의 진행을 보시면서 품위있게 단장한 생산건물들에 대해서는 양복을 쪽 빼입은것을 갈고 하시고도 록지와 화초, 그리고나무들을 이음 공장 구내의 주위환경에 대해서는 정말 멋있고 깨끗하다고 하시었다. 그이께서 공장의 아름답고 문화적인 생활환경, 생산환경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보시건은 공장을 사랑하고 일목일초를 사랑하는 그

들이 애국의 마음이었다. 애국심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치신것처럼 자기 집 딸안에서부터 시작되며 부모처자에 대한 사랑, 고향마을과 일터에 대한 사랑,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진다. 산과 들에 심고 자라우는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에도 비끼고 땀 흘리며 창조물을 세우는 흠 찬조도록 할데 대한 문제들을 강조하신 장군님께서 구내를 돌아보실 때였다. 그이께서는 수삼나무, 오동나무,

문화후생시설건설로부터 공원과 유원지, 산림과 록지조성에 이르기까지 이 땅을 다루는 모든 국토관리사업은 나라의 부강변영과 인민의 훌륭한 생활터전, 후대들에게 풍요하고 아름다운 산천을 물려주도록 하기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자인것이다.

예로부터 삼천리금수강산이라고 일러온 이 나라를 더 아름다운 금수강산으로 꾸리며 공장 하나, 창조물 하나 세워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건설으로, 재부로 일떠세워 후대들에게 물려주도록 해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이다.

대규모의 토지정리, 대동강과수종합농장, 개천-태성호물길, 마진호댐, 갈마구장, 평양인속공원, 룡라 인민유원지,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들 비롯한 이 땅우에 마련된 모든 창조물마다 아름다운 조국강토와 부강변영, 인민의 행복을 위한 결세사업들의 숭고한 조국관, 미래관이 비껴있다.

본사기자 리철

## 애국의 마음으로

열렬한 조국애가 떠오른다. 언제 어디서나 이 땅을 마음속에 소중히 안고있는 그이께서는 울창한 숲이나 드넓은 대지를 보시면 조국의 부강과 후손만대의 무궁할 변영을 생각하시며 푸른 산, 푸른 들이라고 외우기도 하시고 인민군장병들이 부대 주둔지에 많은 나무를 심은 것을 보시면 애국자부대라고 평가하곤 하시었다. 아담한 마을에 살거나 우거진 것을 보시면 살거나부동네, 병영 구내에 펼쳐진 갈나무풍경을

# 남조선당국의 《원칙고수론》을 해부함

남조선당국이 대북정책으로 《한반도신평의로세》와 함께 주요하게 내 들고있는 반통일적책의 하나는 《원칙고수론》이다.

《원칙고수론》이란 한마디로 북에 끌려가지도 않으며 양보하지도 않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틀》을 만든다는 것이다.

피뢰페당은 그러한 논리로 북남관계를 파탄에 몰아넣고 《원칙고수》를 위한 《불가한 진통》이라고 정당화하고 북남관계에서 진전이 이뤄지면 《원칙고수의 결과》라고 철면피하게 자화자찬하고있다.

그런가하면 저들의 도발적책동에 대해서는 그 무슨 《원칙》을 보여주지 않았고 강변하고있다.

참으로 피뢰페당의 《원칙고수론》처럼 해피하고도 어처구니없는 반동적 꾀본은 없다.

《원칙고수론》은 원래 리명박패당이 6.15이후 긍정적발전을 이룩해온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차단하고 그것을 대결의 관계로 되돌려세우기 위해 내뒀었다가 내외의 규탄과 배격을 받고 휴지통에 처박힌것이다.

그런것을 현 남조선당국자가 다시 꺼내놓고 새로운것이냐 되는것처럼 말끝마다 위태위태한 대결정책을 변호하고 위장하는데 써먹고있는것이다.

그러면 《원칙고수론》의 구체적내용과 본질은 무엇인가.

남조선당국의 《원칙고수론》은 무엇보다 6.15를 전면부정하고 북남관계를 대결의 시대로 되돌려놓으려는 철저한 반통일론이다.

피뢰페당은 지금까지의 북남관계는 북에 남이 끌려가는 관계, 남이 북에 굴종과 굴욕을 당하는 《비정상관계》였다고 하면서 그것을 《정상관계》로 바꾸어놓는것을 그 무슨 《원칙》으로 내세우고있다.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비정상관계》란 6.15이후 좋게 발전해온 북남관계를 의미한다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다.

그들은 북남수뇌분들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채택한것 자체가 비정상이고 반세기이상 끌어졌던 지역과 혈액이 이어져 수많은 동포형제들이 북과 남을 오가며 동포애의 정을 나누고 통일의지를 과시한것도 비정상이라는것이다.

우리 민족끼리리념을 공동으로 확약한것은 북의 전략에 말려든것이고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을 이룩하기 위한 합의는 북에 리용당한것이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창설하기로 한것은 북에 굴종을 당한것이고 개성공업지구 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은 북에 《머저기》를 한것이라는것이다.

지어 피뢰페당은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에 도장을 찍은 전직 《대통령》들을 박해하여 죽음에 몰아넣은것도 부패하여 수뇌상봉담화록까지 공개하여 란도 질하는데 이르렀다.

은 겨레에게 통일의 희망과 기쁨을 안겨주고 전세계가 환영의 박수갈채를 보낸 6.15가 안아온 경이적인 북남관계 발전이 《비정상》이란 피뢰페당이 떠드는 《정상》은 과연 어떤것인가.

지금 북남관계는 피뢰페당의 극악무도한 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모든것이 뒤쪽박죽이 되고 파괴되고 단절되어 있다.

조선전쟁이래 처음으로 북과 남사이에 불과 불이 오가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핵전쟁위기가 최절정에 달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극도로 위협당하고있다.

물건대 씨름과 같이 동족끼리 서로 대결하며 싸우는것이 《정상》적인 남북관계란 말인가.

북과 남이 서로 화해하고 손잡고 화목하게 살아가자는것이 무엇이 나쁘며 그것이 왜 《비정상》이란 말인가.

6.15가 있었기에 남조선의 현 집권자도 2002년에 평양을 방문할수 있었는데 그것도 《비정상》이고 북에 끌려다니며 굴욕당할것인가.

결국 피뢰페당이 북남관계를 《비정상》으로부터 《정상관계》로 바꾸

어놓겠다고 하는것은 6.15통일시대를 대결의 시대로 되돌려놓으려는 시대착오적인 반통일책동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남조선당국의 《원칙고수론》은 또한 북남관계의 통일지향적성격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분렬과 대결을 추구하는 범죄적인 체제대결론이다.

피뢰페당은 그 무슨 《국제적기준을 보장하는 보통국가관계》를 제창하면서 《남북관계를 보통국가관계로 만드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립장》이라고 하는가 하면 《한반도신평의로세》도 《국제적기준에 부합한 남북관계》로 만드는것을 기본목적으로 하고있다고 공공연히 떠벌이고있다.

이것은 북남관계의 통일지향적성격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반민족적인 망언이다.

북남관계는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이다.

그러므로 북과 남사이에서는 나라와 나라사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제적기준과 규범이 그대로 통용될 수 없다.

북과 남은 그러한 취지에서 이미 오천년에 북남관계의 성격과 그에 맞는 원칙, 규범과 질서들을 공동으로 확약하였다.

특히 북남선언들에는 북남관계발전과 평화통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원칙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 있다.

북남사이에는 공동으로 합의한 이러한 기준과 원칙, 규범적내용에 다른 그 어떤 일방적인 원칙과 국제적기준이란 있을수 없으며 더구나 《보통국가관계》라는 개념은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뢰페당이 《국제적기준》이니, 《보통국가》니 하는것은 북남관계의 외세의 몰락방로, 국제적분쟁거리로 내몰겨놓고 반공화국소동에 더욱더 매달리며 《제도통일》, 《흡수통일》 망상을 실현해보려

는데 그 불순한 목적이 있는것이다. 피뢰페당의 《국제적기준》이라는 보통국가관계》론은 《유신》독재자가 제창하던 범죄적인 《두개 조선》론의 복사판이다.

《유신》독재자는 미국상전이 쥐여준 분렬주의적인 《두개 조선》론을 내들고 《대화있는 대결》과 《체제 경쟁》을 떠들면서 《승승통일》을 악랄하게 추구하다가 수치스러운 종말을 고하였다.

현 피뢰보수패당 역시 《대화있는 대결》과 《체제대결》,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길》을 운운하면서 파멸의 위험한 길로 내달고있다.

지금 피뢰적패당은 그 누구의 《변화》시켜보겠다고 우리의 최고준엄과 제도를 악랄하게 비방중상하고 인간쓰레기들까지 끌어모아 반공화국노예노예책동에 써먹으며 분렬없이 날아대고있다.

피뢰페당이 그 무슨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조성이요 뭐요 하고있는것도 분렬을 영구화하고 그곳을 평화의 허울을 쓴 대결지역으로 악용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분렬되고 저주로운 군사분계선에 의해 나라가 두동강 난것도 수치스러운 일인데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공민화》하여 외국관광객들을 끌어들여 돈벌이를 하겠다는것이야말로 얼마나 치사하고 격분할 일인가.

실로 피뢰페당이 떠드는 《보통국가관계》론이야말로 저들의 반통일대결적본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극악한 범죄행위이다.

남조선당국의 《원칙고수론》은 또한 조선반도평화를 파괴하고 긴장을 격화시키며 전쟁을 추구하는 위험천만 한 동족대결론, 북침전쟁론이다. 피뢰페당은 《확고한 안보태세》와 《굴건한 한미동맹관계》, 《강력한 대북억지력》을 떠들며 새 전쟁도발책동에 열을 올리면서 《강경》과 《압박》을 또 하나의 《대북원칙》으로

내세우고있다. 피뢰호전광풍이 운운하는 《안보》, 《대북억지력》이요 하는것은 군사적대결과 전쟁책동의 대명사로서 저들의 침략적흥심을 가리우기 위한 위장물에 지나지 않는다.

북침전쟁책동에 매달리면서 그 누구의 《핵위협》이요, 《도발》이요 하는것은 침략의 구실을 찾기 위한것으로서 누구에게도 납득될수 없는 어불성설이다.

특히 피뢰보수패당이 떠드는 《북핵 불용》이니 뭐니 하는것이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침략적목적을 달성해버리는 교활하고 음흉한 술책이라는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침략적인 미국의 핵무기와 핵전쟁책동을 비호두둔하면서 동족의 정의로운 핵억제력에 대해 횡설수설하는것이야말로 적반하장외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현 피뢰보수패당의 반공화국핵소동은 그 무분별성과 위험성에 있어서 리명박적패당을 훨씬 통가한다.

남조선과 그 주변에 미국의 핵전쟁장비들을 더 많이, 더 빈번히 끌어들여 그곳을 미국핵무기의 전시장으로, 북침핵불장난의 란무장으로 만들어놓는것도 현 《정권》이요 미국의 핵전쟁책동에 가장 악랄하게 추종해나선것도 다름아닌 현 당국이다.

리명박역도가 상전의 《핵우산》 밑에 들어가기 위해 미국과 《핵대비례세》 전쟁각본에 맞도장을 찍었다면 현 피뢰보수패당은 미국에 구걸하여 우리에게 대한 《핵선제공격》을 노린 《맞춤형억제전략》을 채택하고 미국의 미싸일방어체제에까지 가담해나섰다.

우리의 대화평화노력에 의해 조선반도에 일시 완화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피뢰페당은 미국상전의 옷자락에 매달려 북의 《통미북남전술》에 말려들지 말며 《일관되고 분명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달라》고 앙탈을 부리었다.

그러는가하면 세계 여러 나라들을 찾아다니며 반공화국국제공조를 입이

달도록 구걸하고 안으로는 류례없는 《종북》소동으로 남조선민주진보세력을 모조리 쓸어버리려고 일대 파초폭압광풍을 일으켜 세상을 경악케 하고 있다.

실로 현 《정권》이 집권하여 한 일이란 북침전쟁책동과 반공화국노예책동, 통일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고 전쟁위험을 증대시킨것밖에 없다.

제반 사실들은 피뢰페당이 떠드는 《원칙고수론》이란 이름만 바꾼 친미사대매국론이고 동족대결론이며 북침전쟁론이라는것을 뚜렷히 보여준다. 피뢰페당이 《원칙고수론》에 계속 매달리는 한 북남관계가 언제 가도 개선될수 없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한반도신평의로세》를 내들고 《신뢰》를 운운하면서 《원칙고수》를 떠드는것은 자가당착이고 자기모순이다.

북과 남이 공동으로 지켜야 할 원칙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이며 세 세기의 통일대강인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서 천명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야말로 북과 남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유일무이한 공동의 원칙이며 그것을 떠난 다른 원칙이란 있을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신뢰조성과 북남관계개선을 바란다면 열도당도 많은 《원칙고수론》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북과 남, 은 겨레의 지향과 요구대로 하루빨리 북남공동선언을 리행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원칙고수론》은 그 누구에게도 통할수 없으며 그것이 가져다줄것은 수치스러운 파멸밖에 없다.

만약 피뢰페당이 우리의 경고와 내외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원칙고수론》에 계속 매달린다면 역사와 민족의 저주속에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

문명원

(《로동신문》에서 전재)

얼마전 남조선당국이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3~2017년)을 발표하였다.

주목되는것은 여기에 지난 9월에 심의확정할 당시 반영되지 않았던 《북핵문제해결》과 《북인권법》 제정에 대한 지원》을 더 포함시켰었다.

알려진것처럼 남조선당국은 지난 9월에 심의확정한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초안에서 《1차 기본계획》에 반영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문제, 현 정권체제를 중시시키고 향후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갈데 대한 문제 등 10.4선언에 명기되고 북과 남이 리행하기로 합의한 문제들을 완전히 폐기해 버렸다.

또한 북남사이의 현안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것으로 되어있

던 《1차 기본계획》의 내용들을 삭제하고 《안보와 교류협력의 균형있는 추진》을 통해 《북변화를 유도》한다는것을 쏘아박았으며 그 무슨 《신뢰》를 운운하면서 대결을 기본으로 하는 《중립추진과제》라는것을 없애 버렸다.

그러면 이것도 모자라 여기에 반민족적이며 대결적인 내용들을 삽입한것은 남조선당국이 겨레의 지향과 대세의 흐름에는 아랑곳없이 리명박 전 《정권》처럼 《북핵문제》와 《북인권문제》를 북남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계속 대결과 긴장격화의 길로 나가려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누구에게나 명백한바와 같이 핵문제해결은 북남관

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될 수 없다. 공화국의 핵억제력은 외세의 핵전쟁도발책동을 저지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수단이다.

남조선당국이 공화국의 핵억제력때문에 북남관계개선을

실하기 위한 대결악법이다. 이 《법안》이 제정되게 되면 반공화국노예책동들의 《대북진단살포》행위 등에 대한 당국의 지원이 강화되는것은 물론 현 《정권》의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에 합법성을 띠고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되게 된다. 《핵문제》와 《북인권》을 북남관계와 련결시킨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

계획》이야말로 북과 남의 모든 관계개선의 길을 모조리 가로막고 대결과 긴장만을 격화시키는 반통일문서, 체제대결각본이다.

그런것은 차라리 《발전 계획》이라는 명칭보다 명백히 《퇴보계획》이라는 이름을 달아야 옳은것이다.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이 남조선 현 보수당국의 5년간 《대북정책》을 담고있다고 할 때 앞으로 북남관계가 어떻게 흐르겠는가는 너무나 명백하다.

북남관계개선은 시대의 요구이며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절박한 과제이다. 이것을 외면하고 또다시 5년간을 동족대결정착으로 북남관계파국을 이어가려는 남조선당국의 책동은 용납 못할 반민족적행위로 된다.

본사기자 주광일

## 체제대결소동의 최절정

최근 남조선당국이 공화국 주민들에 대한 유인람치와 월남도주자들을 리용한 모략소동 등 반공화국대결책동에 혈안이 되어 날뛰고있다.

정보원이 공화국경내에서 불순분자들을 규합하여 사회와 계도의 안정을 파괴할 목적으로 평양을 침자를 침투시키는가 하면 북부국경지대에 《두리하나》와 같은 모략단체들을 들이밀어 북주민들에 대한 유인람치행위를 대단식으로 확대하고있다.

또 외교부는 저들때도 해외의 공화국국민들을 유인람치하기 위한 그 무슨 《협력》이라는것을 내오고 주련 나라주재 대사관들에 담당인원들을 대폭 증강하였다. 통일부도 이에 뒤질세라 《도강비》라는 예산항목을 만들어놓고 《북리탈주민지원재단》이라는것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면서 북주민들에 대한 유인람치에 광분하고있으며 월남도주자들에게 출연비까지 대주면서 반공화국모략선전에 써먹고있다.

이 모든것은 공화국의 주권과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며 공화국의 제도와 체제에 대한 극악한 도발, 사실상의 선전포고이다. 련대 남조선보수당국이 민족내부의 반목과 질서를 부추기고 이 땅위에 대결과 전쟁의 광풍을 몰아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현 당국과 같이 로골적으로 평양을 침자를 침투시키는가 하면 북부국경지대에 《두리하나》와 같은 모략단체들을 들이밀어 북주민들에 대한 유인람치행위를 대단식으로 확대하고있다. 또 외교부는 저들때도 해외의 공화국국민들을 유인람치하기 위한 그 무슨 《협력》이라는것을 내오고 주련 나라주재 대사관들에 담당인원들을 대폭 증강하였다. 통일부도 이에 뒤질세라 《도강비》라는 예산항목을 만들어놓고 《북리탈주민지원재단》이라는것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면서 북주민들에 대한 유인람치에 광분하고있으며 월남도주자들에게 출연비까지 대주면서 반공화국모략선전에 써먹고있다.

이 모든것은 공화국의 주권과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며 공화국의 제도와 체제에 대한 극악한 도발, 사실상의 선전포고이다.

현 남조선당국이 집권한지 얼마 안되는 기간에 벌써 선입 《정권》을 짚먹는 대결책동에 광분하면서 일단의 공화국국민들을 유인람치하기 위한 그 무슨 《협력》이라는것을 내오고 주련 나라주재 대사관들에 담당인원들을 대폭 증강하였다. 통일부도 이에 뒤질세라 《도강비》라는 예산항목을 만들어놓고 《북리탈주민지원재단》이라는것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면서 북주민들에 대한 유인람치에 광분하고있으며 월남도주자들에게 출연비까지 대주면서 반공화국모략선전에 써먹고있다.

이 모든것은 공화국의 주권과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며 공화국의 제도와 체제에 대한 극악한 도발, 사실상의 선전포고이다.

현 남조선당국이 집권한지 얼마 안되는 기간에 벌써 선입 《정권》을 짚먹는 대결책동에 광분하면서 일단의 공화국국민들을 유인람치하기 위한 그 무슨 《협력》이라는것을 내오고 주련 나라주재 대사관들에 담당인원들을 대폭 증강하였다. 통일부도 이에 뒤질세라 《도강비》라는 예산항목을 만들어놓고 《북리탈주민지원재단》이라는것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면서 북주민들에 대한 유인람치에 광분하고있으며 월남도주자들에게 출연비까지 대주면서 반공화국모략선전에 써먹고있다.

이 모든것은 공화국의 주권과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며 공화국의 제도와 체제에 대한 극악한 도발, 사실상의 선전포고이다.

결을 허물려는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히스터리적발광이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의 극심한 부정행위로 인한 심각한 내부혼란과 위기로 초상정치세가 된 보수패당이 여론의 이목을 따내려고 돌리고 궁지에서 벗어나보려는 단말마적발광이다.

하지만 이 빠른 세상에서 그러한 오그랑수가 통할리는 만무하다.

공화국은 이미 북주민들에 대한 유인람치와 인신매매행위에 가담한자들, 공화국을 혈통은 모략선전에 나선자들을 비롯하여 북의 주민과 주민들의 인권을 해친 자들은 그가 정보원 요원이건, 심부름꾼이건 관계없이 자비한 처단대상으로 될것이며 이 행동소동을 즉시 시행할것이라는것을 엄숙히 천명하였다.

보수패당은 닭알로 바위치기와 같은 어리석은 망동으로 얻을것은 자멸밖에 없으며 내외의 규탄배격만을 불러일으킬뿐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본사기자 김철민

## 《자주민보》사수투쟁에 펼쳐나설것을 호소

남조선의 《자주민보》페간지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8일 서울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진보연론계간 책동을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민가협 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권오현은 박근혜 《정부》가 진실보도를 하는 《자주민보》를 폐간하려는것은 자신의 입맛에 맞

지 않은 세력과 언론은 모두 다 없애겠다는 독재적발로라고 단죄하였다.

진보연대 사무처장 안지중은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 된 상황에서 평화적해결을 주장하고 전쟁을 반대하여 《자주민보》에 대한 당국의 폐간시도는 도저히 있을수 없는 폭거라고 규탄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대표 박재현은 통일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리행하여 민족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앞장서온 언론의 폐간이란 있을수 없다고 언명하였다.

민권연대 상임고문 윤환락은 국민의 눈을 가리우고 입을 막고 압축천지를 만들려는 박근혜 《정부》의 추태를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서울통일연대 의장 김규철

지난 12일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2013서울안보대화》에 보면 《추하메세》말이 나올수 있는가 하는지》라는데서 《북핵문제가 역내 평화와 안정의 시급한 과제》니 뭐니 하며 또다시 북을 괴롭혔었다. 그는 얼마전 유럽 나라들을 행차하면서도 《핵위기》니, 《인권》이니 하는 망언을 일삼아 겨레의 분노를 촉발시켰었다.

남조선집권자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입에서 뱀이 나가는지 구멍이 가 나가는지 모르고 계속 내뿜는 도발망언들은 그의 뼈속까지 들어찬 동족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과 대결흥심을 그대로 드러내보이고있다.

오늘날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있는것은 과연 누구인가. 미국상전과 야합하여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북침전쟁연습을 매일과 같이 벌려놓는가 하면 방대한 첨단 핵라격수단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공화국을 시시각각 위협하고있는 미국과 남조선보수패당이다.

삼척동자도 뻔히 알고있는 진짜도발자, 평화의 파괴자들의 입에서 어떻게 그 누구의 《핵문제》

가 《평화와 안정의 시급한 과제》라는 철면피한 대화가》에 보면 《추하메세》말이 나올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번 《2013서울안보대화》가 개막된 첫날부터 《주부총리》와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남조선의 고위당국자들이 나서서 《북이 여전히 핵개발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북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는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들의 안정적발전을 저해하고있다》, 《니 하는 낱드개비같은 소리를 할것 하듯 늘어놓는것은 결코 스쳐보낼수 없다.

여기에는 이른바 《핵문제》를 구실로 저들의 대결정책을 그 누구의 《위협》때문인것으로 합리화하는 한편 국제적인 반공화국고립과 제재를 더욱 강화하려는 보수패당의 음흉한 속심이 깔려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오산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아무리 갖은 오그랑수를 써도 평화의 파괴자, 동족대결광신자로서, 동족의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수 없다.

최명제

이 지체되는것으로 보는것은 외세추종으로부터 나온 편견이며 체질화된 동족대결의식의 발로이다.

이미 북남관계는 핵문제를 구실로 감행되는 남조선당국의 부당한 협력차단소동에 의해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이번 《북핵문제해결》을 《기본계획》에 더 첨부한것은 그들이 《핵문제》를 구실로 외세의 반

란하였다. 한편 범민련 재민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자주민보〉는 창간 이래 통일을 지향하며 북바로알기운동을 통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기여하는 언론매체이다. 그 정론지를 폐간시키려는 반통일, 반애국의 책동을 우리는 결코 방관하지 않을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자주민보》는 지금까지 북남공동선언리행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서왔다. 반북대결과 사실외곡이 란무하는 남조선에서 그대도 인민들에게 공화국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르게 알려준것이 《자주민보》이다.

《자주민보》와 그 성원들은 《자안법》에 걸어 악

착하게 탄압하다 못해 이제 《종북매제》를 운운하며 폐간까지 하려는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남조선보수당국의 《종북》광란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공화국의 현실을 남조선 인민들에게 알려주는것이 피로 되고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해 애쓰는 의로운 활동이 《종북》으로 불리는것이 바로 오는 남조선의 처참한 현실이다.

민족의 자주통일지향에 역행하고 진보민주세력, 통일에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에 광분하는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범죄적책동은 그 무엇으로써도 용납될수 없다.

본사기자 리경순



최근 남조선에서 진보민주 세력에 대한 보수당국의 탄압이 절정에 이르렀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5일 남조선당국은 각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라는 법부부가 제출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안을 통과시키는 망동을 부린데 이어 자주, 민주, 통일을 주장하는 이 당의 리념을 문제시하면서 빠른 시일안에 정당활동 중지 가져분별정을 내릴것을 헌법재판소에 로골적으로 강박하고있다. 이런 속에 지난 12일에는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인 리석기 에 대한 재판놀음이 벌어졌다. 내란음모사건으로 재판이 열리기는 전두환군사장동들이 벌여놓았던 1980년 9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혐의사건으로 감형한 《군법회의》 이후 33년만에 처음이다.

이보다 앞서 10월 24일 보수당국은 공용노동부를 내세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로조아남》을 공표하여 로조로서의 합법적활동을 더이상 못하게 하려 하였다. 그런데 지난 13일 《법원》이 전교조가 제출한 《법외로동조합법정지시청》을 받아들여서

해직교원 몇명이 로조에 가입하였다든 부당한 이유로 전교조를 해산하려던 보수 세력들의 불순한 기도는 수포로 되었다. 이에 불이 부은 보수세력들은 이번에는 전교조가 지난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다는 터무니없는 구실을 붙여가며 거기에 이 조직을 해산 하려 하고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로)에 대해서는 지난해 《대통령선거》때 야당후보를 지지해나섰다고 하여 대대적인 압수수색놀음을 벌리고있으며 《법적경쟁대처》니 뭐니 하면서 이 단체를 깨버릴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 이외에도 진보적인인터넷신문인 《자주민주》를 《리적매체》에 걸이 강제폐간시키려고 하는 등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의 도수를 끊임없이 높이고있다.

《내련》 아니면 《중부》 세력, 《적》으로 몰아 진보 세력을 씨조차 말려버리는 말 그대로 《유신》 독재시대를 방불케 하는 보수당국의 과소적인 폭거에 남조선 각계가 반발한것은 물론이다.

# 민주주의수호이나, 《유신》 독재부활이나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남조선 각계층이 삭발식과 무기한 단식 등을 벌리며 보수당국의 과소적만행을 폭로단죄하는 반 《정부》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그런가하면 파쇼당국이 전교조를 해산할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자 수백명의 교원들이 이 조직에 새로 가입하여 보수세력들을 아연케 하고있다.

특히 민주로총과 《한국적보련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와의 전면투쟁》을 정식 선포하고 시국선언발표, 성토대회, 촛불집회, 시가행진 등으로 투쟁기운을 고조시키고있으며 지난 10일에는 서울에서만도 5만명이 거리에 떨쳐나 《박근혜정권퇴진》 구호를 웨치면서 대규모 시위를 벌여왔다.

이에 바빠있는 보수당국은 수많은 폭압경찰을 내몰아 물대포까지 쏘아대면서 각계층의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다.

한다. 그것도 그렇듯이 통합진보당과 전교조, 전공로 등에 대한 보수당국의 탄압책동을 짓부시는것은 다만 그들에게만 국한되는것이 아니겠는가이다.

지금 보수당국은 지난 《대선》때 저들이 저지른 권력강탈행위의 진면모가 드러나자 이를 가리우는것은 물론 래년 6월에 있게 될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이거 보수세력의 장기집권을 실현할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진보세력들을 마구 짓밟아버릴 흉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다.

《새누리당》이 지난 6일 진보정당을 물론 시민단체까지 《중부세력》으로 몰아 해산할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드는것은 그 단적인실례이다. 《떨어서 먼저 안나오는 웃》은 식으로 저들의 눈에 거슬리는 진보세력들을 마구잡이로 탄압하는 보수당국의 파쇼폭거로 지금은 전교조와 전공로, 통합진보당이 위협을 받고있지만 앞으로 또 어느 단체나 야당세력들이 폭압의 마

수에 걸려들지는 누구도 예측할수 없다.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층은 련대련합하여 《유신》 독재의 부활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투쟁의 거리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이다.

그 투쟁의 마당에서 단결을 주장하며 자주 울려나오는 시 《그들이 나를 잡아갈 때》의 몇구절이 여기에 있다.

도이쉴란드에서 처음 나치가 등장하였을 때 처음에 그들은 유대인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때문입니다 ... 그 다음에 그들은 사회주의자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때도 나는 침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기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엔 로동운동가들을 잡아갔습니다 나는 이때도 역시 침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로동운동가가 아니었기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침묵했습니다 ... 그리고 어느날부터는 내 이웃들이 잡혀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침묵하였습니다 ... 왜냐하면 나는 그들이 잡혀가는것은 뭔가 죄가 있기때문이라고 생각했기때문입니다

... 그러던 어느날 그들은 나를 잡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 주위에는 나를 위해 이야기해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조선 각계가 민주와 파쇼사이의 누가 누구를 하는 참에 대결에서 한걸음 두걸음 후퇴한다면 종당에 남조선은 시에서 반영된것과 같은 히틀러나치스독재시대로 되돌아가게 될것은 명백하다. 이것은 21세기의 비극이고 민족의 수치이다.

남조선이 민주화되어야 북남관계의 진정한 발전도 있으며 통일의 꿈도 실현할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남조선인들이 결사항전으로 《유신》 독재의 부활을 막아야 할 때이다. 그 길만이 남조선인들이 살길이고 자주, 민주,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남조선 각계가 민주와 파쇼사이의 누가 누구를 하는 참에 대결에서 한걸음 두걸음 후퇴한다면 종당에 남조선은 시에서 반영된것과 같은 히틀러나치스독재시대로 되돌아가게 될것은 명백하다. 이것은 21세기의 비극이고 민족의 수치이다.

남조선이 민주화되어야 북남관계의 진정한 발전도 있으며 통일의 꿈도 실현할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남조선인들이 결사항전으로 《유신》 독재의 부활을 막아야 할 때이다. 그 길만이 남조선인들이 살길이고 자주, 민주,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유신》 독재부활을 반대하고 민주주의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 4. 19전야를 방불케 하는 남조선정국

남조선정국이 소란스럽기 그지없다. 《국회》는 여야간의 치열한 다툼질로 《식물국회》로 전락되고 거리에서는 《유신》 독재의 부활을 반대하는 진보단체와 파쇼독재세력을 비호하는 보수단체들이 매일같이 시위로 낮과 밤을 보내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정세평론가들은 《현 시국이 1960년의 4.19전야를 방불케 하고있다.》고 평하고 있다.

어찌 그렇지 않았는가.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현 사태가 1960년 4월과 너무도 유사하기때문이다. 1960년 4월 19일 남조선에서는 리승만의 《3.15부정선거》를 반대하는 대중적인민봉기가 일어났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가 벌리는 대중적인 투쟁은 물론 《국회》에서 심화되는 여야간의 싸움질도 바로 지난 《대선》때 보수집권세력들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 책임자처벌을 중점에 두고 벌어지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남조선에서 지난 《대선》때 《정보원내직원대결사건》으로 터진 부정 《선거》의혹은 근 1년이 되어오는 오늘까지 마무리되지 못하고있다. 사건이 제기되자마자 보수세력들이 일부 개별적사람들이 저지른것으로 몰아가던 《불법대선개입사건》은 최근에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폭로된것처럼 권력기관들이 마구 동원되어 조직적으로 감행된대형법외행위였다. 이로 하여 지난 《대선》이 불법부정 《선거》라는 여론이 급속히 높아가며 더이상 수습할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일이 이쯤 되었으면 보수 세력들은 저들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책임지고 사과할 대신 이리저리 책임회피만 하고있다. 지어는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격으로 제편에서 큰소리치며 진보세력들에 책임전가까지 하는 판이다. 그들이 전국교직원 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 조합이 지난 《대선》때 야당후보를 지지했다고 하여 《불법대선개입》을 운운하고있는것은 그 하나의 실례이다. 이것도 성차지 않아 보수세력들은 통합진보당을 《중부파괴세력》으로 몰아 해산하려는 《정치보복》 행위를 거리낌없이 하고있다.

권력기관들의 《불법대선개입사건》을 《몰라기》 하려는 기도밑에 보수집권세력들이 감행하는 진보세력들에 대한 탄압담포도 말미암아 남조선정국은 순식간에 얼어붙고 앞으로의 사태는 한치앞도 내다보기 힘들다. 사태가 이렇게 험악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해의나들이나 다니면서 나이나 격에 어울리지 않게 외국말이나 씨부렁거리는가 하면 판에 박은 동족대결타령만 읊어대고있다.

그러나 사태가 언제 풀리겠는가. 리승만이 《3.15부정선거》를 감싸보려다 4.19인민봉기로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났듯이 현 집권자도 지난 《대선》때의 불법부정의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할 대신 책임회피나 하고 지어는 진보세력들에 대한 파쇼폭압으로 그것을 《몰라기》 하려 한다면 53년전의 일이 또다시 되풀이될것이라는것이 각계의 평이다.

김연희

최근 남조선에서 민주주의를 비롯한 야당세력들과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이 새로운 현대기구를 내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정권》을 반대하는 투쟁이 새로운 양상을 띠고 전개되고있다.

지난 12일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의원 등 정치권과 시민단체, 종교계, 학계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정보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회복을 위한 시민사회, 종교계연석회의》가 열렸다. 이번 연석회의는 지난 《대통령선거》 이후 처음으로 열렸으므로 하여 각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연석회의에서는 정보원과 군사이버사령부를 비롯한 권력기관들의 《대선개입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설치와 《국정원 개혁특위》 설치 등이 도의 개략이다. 또한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시국선언운동과 서명운동을 더욱 확대하기로 하

고 따로따로 투쟁을 벌리던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데 뭉치기로 한것이다.

여론들은 이번 현대기구결성 결성이 앞으로 있게 될 지방 《선거》에서 야권세력의 승리를 위한 렌대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정치권에서의 지각변동》을 예고해준다고 평하고 있다.

앞으로 연석회의에서 합의된 《특검공동발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통한 각계층의 투쟁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어떻게 하나 부정협잡 《선거》문제를 덮어버리고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에 매달리는 현 《정권》에게 커다란 타격으로 될것으로 보인다.

지금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은 연석회의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신야권연대》를 비롯한 보수패당은 지난 《대선》때 현 집권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통합진보당을 그 무슨 내란음모사건에 걸려 탄압하고있는가 하면 정당해산심판청구안까지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등 진보민주세력말살에 혈안이 되어 날뛰고있다. 이러한 사태발전은 현 《정권》에 항의하는 각이한 세력들이 하나로 뭉쳐 싸울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로부러 지난 시기 《대선개입사건》을 둘러싼 정치적적합에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 새로운 현대기구결성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다 아는바와 같이 남조선에서 18대 《대통령선거》가 《선거》를 둘러싼 정치적혼란은 좀처럼 가시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세력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대통령선거》가 정보원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이 총동원된 가운데 치러어진 불법 《선거》라고 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현 집권자의 사과 등을 요구하고있다. 뿐만

못한것이라고 단죄하였다. 당국의 야당해산기도가 실천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정치활동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본격적으로 벌리는것이아말로 시민사회계열에 내선 중요한 과업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 야당해산심판청구안은 불법이며 무효라고 주장

남조선의 59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6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합진보당해산심판청구안은 불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당국이 정당해산의 근거로 내세운 이른바 《내란음모사건》 자체가 아직 1심재판조차 거치지 않은것으로서 유효로 볼수 없기때문이라고 그들은 밝혔다.

또한 통합진보당의 강령 역시 위법적요소가 전혀 없기때문이라고 하면서 로동자, 농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당의 강령을 위법으로 몰아대는 그자체가 위법이라고 언급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이처럼 무리한것을 하는것은 권력

기관의 《선거》개입행위가 속속들이 밝혀지자 이를 은폐하고 혼란에 빠진 국민을 전환하기 위해서라고 까맣혔다.

국민의 지지로 제2야당의 지위를 확보한 통합진보당이 현 《정부》의 정치보복과 위기탈출용으로 강제해산당한다면 이 땅에서 민주는 여지없이 말살되게 될것이라고 단죄하였다.

박근혜는 민주를 유린하는 행위를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번 사태는 통합진보당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떨쳐나서 강제해산행동을 지지시킬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 진보세력의 정치활동을 억압하는 당국의 책동을 단죄

강제해산을 위한 청구안을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특히 청구안이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은채 《국무회의》에서 강행적으로 통과된것이 나 검토시간이 충분히 보장

되지 않은것 등은 매우 중대한 절차상의 오류라고 비난하였다.

이것은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고 진보세력의 정치활동을 억압하기 위한 의도에 따

본사기자

## 바꿔야 할 남측의 대북사고

대결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에 실것을 진심으로 바랬다. 하지만 지난 8개월 남짓한 기간 현 남조선당국의 행적은 우리 겨레에게 실망만을 안겨주고있다.

현 남조선당국자는 지난해 《대통령선거》때부터 입만 벌리면 《신뢰》를 운운하며 이른바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자기의 《대북정책》이라고 요란하게 광고하였다.

하지만 북남관계에서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존중, 한피를 이룬 인종이라는 민족적감정을 기초하여 서로의 공통점은 내세우고 차이를 극복할 때 비로소 확립될수 있는것이다.

남조선당국자의 북을 대하는 사고가 얼마나 부정적이고 굳어진것인가 하는것은 북남간에 모처럼 열린 첫 북남당국회담을 위한 첫 무회담대 접촉적으로 나타났다.

사실 그때 공화국은 실로 오래간만에 열리게 되었

## 대결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격》과 《금》 문제를 옹호하기 위해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모순적논리까지 들고나왔지만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았다.

지난 시기에 진행된 북남대화들이 《굴종》적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억지로나도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함으로써 이끌어보겠다는 남조선집권자의 소학교 학생수준의 유치한 사고가 바로 근본원인이다.

남측당국자의 사고가 얼마나 경직되어있는가 하는것은 개성공업지구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진행도중에 청와대의 지시로 회담수석대표를 바꾸는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일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교체리유인주 전 수석대표가 회담에서 대결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는것이라고 한다. 문제해결을 위한 성의와 야랑보다 대결만이 만능의 처방이라고 생각하는 이 벼룩이진 사고로 하여 그후 개성공업지구정상화를 위한 당국실무회담은 적지 않은

## 우여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동족에 대한 적대감과 대결의식이 남조선집권자의 골수에 얼마나 깊이 사무쳐있는가 하는것은 집권후 그가 해외에서 내뱉은 망언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수 있다.

그는 외국에 나가서 《북의 도발과 위협》이니, 《대가를 치르게 하였다.》느니 하는 화약내지는 폭언을 내뱉었다가 하면 북의 병진전에 대해서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악의에 차서 헐뜯었다.

얼마전에도 박근혜는 유럽 나라들을 행각하면서 《핵폐기》니, 《인권》이니 뭐니 하면서 북을 악랄하게 고소했으며 그 누구의 《변화》에 대해 짚만 있으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력설하고 있다.

말은 곧 그 사람이라고 할수 있다. 보는바와 같이 현 당국자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역행하고 대결분위기를

## 민족의 일을 자기일처럼 여기고 지지해주는 못할 망정 민족공동의 재부에 대해 발을 맞추어 시키는대로 헐뜯는 이런 무책임한 태도, 상전에 대한 굴종과 동족에 대한 적대적사고는 북남관계발전에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도 백해무익할 뿐이다.

물론 출로는 있다. 그것은 남조선당국이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서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겨레의 노력에 발을 맞추는것이다.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북남공동선언들을 리행하는 여기에 북남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가 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남조선집권자는 민족의 이 충고를 귀담아듣고 대결로 가득찬 구시대적인관점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본사기자 김철민

본사기자 김철민

본사기자 김철민



《용단 폭격》

# 현대적인 치료봉사기지 - 류경구강병원

## 좋은 세상, 좋은 병원

얼마전 풍치수려한 평양의 문수지구에 류경구강병원이 새로 일떠서 개원되었다.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며 번듯하게 일떠선 류경구강병원은 평양 시민들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물질기술적조건들이 보건과학적요구에 맞게 충분히 갖추어져있고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이다.

대형유리로 된 자동출입문을 지나 중앙홀에 들어서면 구강환을 방불케 하는 황홀한 광경에 사람들은 누구나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저 하늘의 별무리가 통째로 내려앉은듯 황홀한 천정의 조명장식들과 윤기나는 대리석과 타일로 색조화를 이룬 기둥들, 은근한 색깔의 마감재들도 특색있게 부각장식을 한 관통홀우의 2층회랑벽들, 복도와 방을 경계지어주는 대형유리로 된 칸막이벽들과 출입문들... 병원 내부의 그 어디를 돌아보아도 모든것이 너무나 완벽하고 훌륭하여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그뿐이 아니다. 이곳 병원에는 인민들의 구강치료활동

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도 그 흔하게 갖추어져있다. 1층에는 접수부와 약국, 삼점, 구강진찰 및 구급실, 종합실험검사과, 보철과가 있고 2층에는 구강렌트겐과, 내과, 외과, 교정과, 소아과, 어린이놀이장이 구비되어있어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요구와 구강의학발전추세에 맞게 근로자들을 위한 의료봉사수준을 보다 높여나갈 수 있게 되었다.

사회주의문명강국으로 비약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일떠선 류경구강병원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 명령도에 의하여 솟아난 인민 사랑의 창조물이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시어 구강병원건설을 몸소 발기하시고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신분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다.

그이께서는 병원터전도 잡아주시고 강력한 건설력량도 보내주시었을뿐아니라 설계로부터 치료설비보장과 의료일군들을 꾸리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친어머니의 세심한 지도를 주시었다. 나라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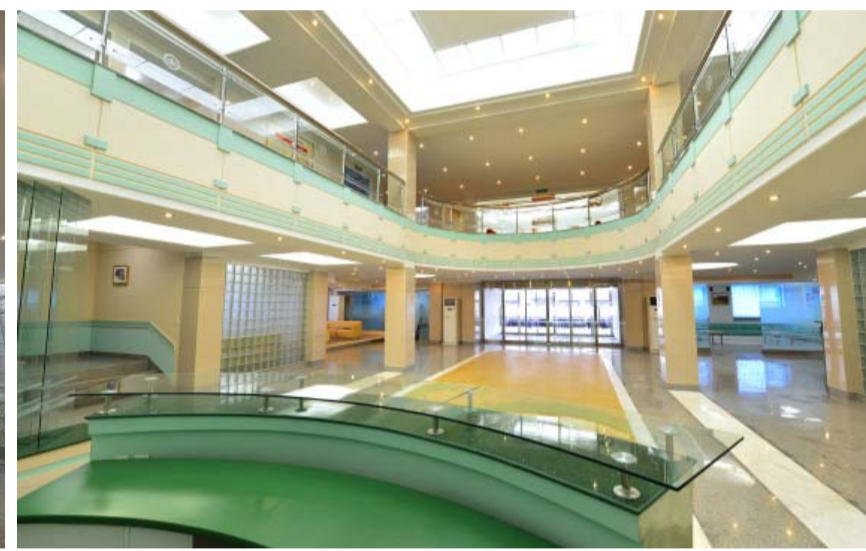
바쁘신 속에서 삼복의 무더위와 비내리는 곳은 날도 가리지 않으시고 여러차례 건설현장을 찾으시어 병원건설과 운영준비사업을 잘해나갈데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었다.

완공단계에 이른 구강병원을 또다시 찾으시어서는 건설을 마무리하고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볼수 있게 병원운영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고 병원인들을 《류경구강병원》으로 지어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실로 인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아끼지 않으시는 그이의 숭고한 사랑과 헌신의 로고가 있어 류경구강병원은 모든 치료환경과 조건, 의료설비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갖춘 종합적인 구강치료봉사기지로, 세상에 자랑할만 한 인민의 병원으로 일떠설수 있었다.

하기에 궁궐같은 류경구강병원에서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마음껏 건설력량을 받게 된 사람들은 저저마다 이렇게 마음속진정을 터치고있다. 정말 우리 세상은 좋은 세상이라고.

본사기자 뽀름식



류경구강병원은 치료환경도 좋고 모든 치료설비들도 첨단수준이다.

## 첨단수준의 의료설비들

누구나 병원에서 구강치료를 받으면 아픔보다도 평상시의 안정감을 찾을수 있다. 최준철 구강외과 과장의 말에 의하면 이곳 병원에는 구강내과, 외과를 비롯한 여러개의 임상치료과와 그에 따르는 구강치료실, 재료준비실들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발전되었다는 구강의료설비

들이 다 있다고 한다. 이곳 구강병원에 있는 구강종합치료기들은 이동식렌트겐설비와 초음파치석제거기가 달려있는 현대적인 의료설비이다.

특히 구강진찰 및 구급실의 구강종합치료기들에는 촬영기가 설치되어있어 화면에서 치료과정을 한눈에 볼수

있게 되어있다. 구강종합치료기뿐만아니라 다목적렌트겐, 혈당계를 비롯한 설비들도 세계적수준의 의료설비들이다.

구강렌트겐과에 있는 다목적렌트겐은 환자의 구강상태만이 아니라 손바닥까지 전야 촬영하여 컴퓨터로 해당 치료설비들에 전송할수 있으며

혈액검사실에 있는 혈당계는 과검사를 진행한지 5분만에 30여가지의 병적증상을 알아낼수 있다.

보철연마기, 전자확대경, 증기세척기, 재료혼합기, 도재소성로, 전자천평 등 기공실에 있는 설비도 최신식으로 갖추어져있어 보철의 정밀성을 담보한다.

구강외과와 교정과에는 구강분야에서의 최근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는 임플란트치료실이 있다.

이러한 현대적인 의료설비들은 사람들에게 대한 의료봉사를 높은 수준에서 진행할수 있게 한다.

한울호 구강렌트겐과 과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 다목적구강촬영기 한대값이 얼마인가를 안다면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할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민들이 돈 한푼 내지 않고 이런 최신의료설비들을 마음껏 리용하면서 구강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우리의 제도가 아니고서는 생각도 할수 없는 일이지요.》

실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사랑에 떠받들려 모든 의료설비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갖춘 류경구강병원은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인민의 병원이다.

본사기자 최대성

## 아무리 일해도 힘든줄 모르겠다

새로 일떠선 류경구강병원에 오기 전에 다른 구강전문병원에서 오래 동안 의사로 일해왔지만 이처럼 모든 치료환경이 완벽하게 꾸려져있고 현대적인 의료설비들이 그 흔하 갖추어진 구강병원은 처음 본다.

류경구강병원에서 일하게 된 기쁨과 긍지를 이루 다 말할수 없다. 그 래서인지 아무리 일해도 힘든줄을 모르겠다.

요즘 대학동창생들을 비롯하여 다른 친구들한테서 많은 전화가 걸려온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에 의해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선 최상급의 구강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게 된 나를 부러워하며 축하의 인사를 보내 오고있다.

진심어린 그들의 목소리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받

고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것을 바라는 당부를 읽으며 마음속결의를 새롭게 다지곤 한다.

그기때에 어긋나지 않게 앞으로 환자치료사업에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침으로써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도록 하겠다.

구강내과 의사 김동민

진정어린 목소리들

## 이 세상 만복을

TV에서 류경구강병원 개원식이 진행된 소식을 듣고 어떨가 하는 호기심을 안고 딸애와 함께 와보았는데 정말이지 너무도 멋있고 훌륭하여 뭐라고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7살 난 우리 딸애도 오늘 구강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를 받고나와 동시에 꼭 맞게 꾸려진 어린이 놀이장에서 갖가지 지능 놀이도 하고 미끄럼대를 타기도 하면서 즐겁게 노는 정신에 집에 가는것도 다 잊은듯 했다.

정말이지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구강병원들도 적지 않지만 평범한 근로자들이 이런 궁궐같은 병원에서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최신의료설비들을 마음껏 리용하면서 구강치료를 받고있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고 본다. 이 세상 복이란 복은 내가 다 받아안은것만 같다.

예로부터 이발이 든든한것을 두고 오복중의 하나로 일러왔지만 인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보다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속에 우리 인민모두가 오복만이 아닌 이 세상 만복을 누리고있다.

평양시 대성구역 룡흥3동 29인민반 리금숙



《모든 치료환경, 조건들이 정말 편리하게 되어있다. 선 편리성, 후 미학성의 원칙이 철저히 구현되어있는 병원이다.》

류경구강병원을 찾는 사람들은 너도나도 이렇게 말한다.

평양시에 크고작은 구강병원들이 있지만 새로 일떠선 류경구강병원은 많은 사람들이 집중되어 살고있는 문수지구에 자리잡고있는것으로 하여 교통상 매우 편리하다.

새로 문을 연 병원이지만 구강병원을 위해 이곳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전혀 낯선감을 느끼지 못한다. 밝은 공원처럼, 안은 궁전처럼 꾸려진 병원의 모든 환경이 사람들에게 친근한감을 자아내는데다가 정물화와 매충, 매 구획마다에 안내판들이 친절하게 걸려있어 어린이나 노인들도 자기가 가려는 치료실들을 쉽게 알아볼수 있기때문이다.

##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이곳 병원에는 구강종합치료기들과 진단치료실, 재료준비실, 약국 등 의료봉사활동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충분히 갖추어져있을뿐 아니라 구급실에서는 한밤중에 찾아오는 구급환자들에 대한 치료도 제때에 해주었다.

류경구강병원에서 특색있는것은 동시에 꼭 맞게 꾸려진 어린이놀이방이다. 어린이들을 데리고 온 어머니들은 흔히 아이들은 이발치료를 한다고 하면 겁부터 먹기 일쑤이지만 갖가지 지능놀이감들과 놀이시설들이 갖추어진 이곳 놀이방에서 한동안 뛰어놀다보면 마음속불안이 어느새 사라지고 치료를 받은 후에도 저도 모르게 마음을 있게 되어 좋다고 말하곤 한다.

그뿐이 아니다. 대기실의 폭신한 의자에 앉으면 구강

과 관련된 상식들을 상세히 알려주는 소개판들이 눈에 안겨오고 실내에 꾸려진 상점들을 찾으면 이삭기에 방치약, 개성고려인삼차약, 파민성방치약, 치담차약

을 비롯한 치약들과 치솔들, 혀닥기솔들을 비롯하여 입안위생과 관련한 각종 상품들이 있어 누구나 마음에 드는 상품들을 사서 리용할수 있다.

구강치료를 받고 나서면 아름다운 꽃관목들이 우거지고 사철푸른잔디밭이 펼쳐진 공원과 야외휴식터가 사람들을 맞이한다. 참으로 모든 치료환경과 조건들이 사람들에게 매우 편리하게 꾸려진 류경구강병원이다.

본사기자 박원평



#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기술면모를

## — 제 24 차 전국 프로그래밍 경연 및 전시회 진행 —

얼마전 평양에서는 제24차 전국 프로그래밍 경연 및 전시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인민생활과 경제의 현대화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프로그램들과 장치, 요소들 그리고 대외에 도입되어 공화국의 프로그램 산업과 정보설비산업의 위용을 과시하는 각종 제품들도 출품되어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전시회에서 많은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은 것은 우리 나라에서 제배 가능한 잔디 품종을 선택하여 씨뿌리기로 부터 계절별 비배 관리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원격관리체계와 제품주문으로부터 생산조직과 지휘, 판매에 이르는 기업생산활동의 종합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 대동강라일공장의 통합자동화체계, 현장모션형수자조장치 《CNC-16》을 내놓은 국가과학원 전시대였다.

CNC설비로 필요한 기계정밀가공을 실현할 수 있게 한 과학연구성과, 다축동시

조종기능과 현장모션대면기능을 가진 고성능CNC장치도 참가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이번에 각 대학들에서도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정보화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정보기술성과들을 내놓았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천의 재단실수율을 높이고 피

복생산준비공정시간을 훨씬 단축하게 한 형지입력배열작도지원체계와 수자식영화면집의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이미 나온 필립영화들을 컴퓨터매체로 전환하며 필립에서와 같은 충분한 색효과를 보장하도록 하는 수자식필립해석체계를 내놓았다.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도 화려라빈발전기진동분석 및 진단프로그램, 다국어문자

인식프로그램 《신동》을 비롯하여 경제효과성과 리용가치가 큰 많은 프로그램들을 출품하여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성, 중앙기관들의 전시대와 각 도들의 전시대, 공장, 기업소들의 전시대에도 정보기술의 도입범위를 부단히 확대하기 위해 애써 노력하는 과정에 이룩된 좋은 연구성과들이 많이 출품되었다.

더우기 사람들을 기쁘게 한 것은 여러 대학들과 정보산업지도국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들에서 편단단위, 아메단위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뚜렷한 전진을 이룩한 것이었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산업지도국의 정보기술인재들은 공동연구를 통해 한계단 더 비약한 컴퓨터조직체계를 출품하였고 재정성과 체신성, 특허운성, 체육성의 프로그램두뇌진진은 편단단위들과 성아메단위의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경영업무활동의 정보화를 완성하는데서 이룩한 성과들을 전시하였다.

많은 사람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열린 생활을 이룬 이번 전시회는 애국에 불타는 심장을 지닌 젊고 양양한 정보기술인재들에 의해 더 빨리 다가올 정보기술발전의 보다 밝은 래일을 확신하게 하였다.

본사기자



# 김일성방송대학 교무부에서 일립니다

김일성방송대학에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판문점을 현지시찰하신 17돛을 맞으며 기념특강을 다음과 같이 조직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의제목: 조국통일운동사에 길이 빛날 력사적사건

강의시간: 1강의

강의날자: 주제102(2013)년 11월 23일

홈페이지주소: <http://www.ournation-school.com>

전자우편주소(E-mail): [schoolmanager@silibank.com](mailto:schoolmanager@silibank.com)

청강생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족의 자랑 - 평양민속공원을 찾아서

평양민속공원에 들어가는 길에 민족의 자랑이 넘쳐나는 민속마을이 있다. 동명관은 고려시 성천객사의 본채(중심건물)이다. 객사는 봉건관리들과 외국 사신들이 오갈 때 숙박하거나 연회 등을 벌리던 관청건물이다. 객사에서는 지방관리들이 여러가지 유흥을 누리기도 하였다.

당시 객사로 널리 알려져 고건축적으로 이름있던 대상으로는 평양대동관, 성천객사(일명 동명관), 안변객사, 고령객사, 경주객사, 전주객사, 밀양객사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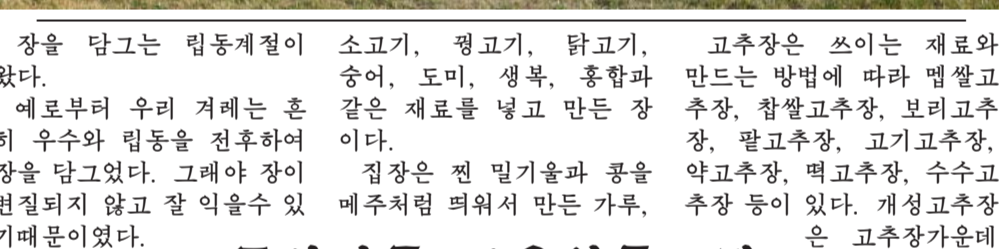
성천에 있던 동명관은 우리 나라 객사건축의 가장 대표적인 유산으로서 1343년에 처음 건설되었다. 그후 여러 차례 불탄것을 고쳐지었는데 1951년 12월 조국해방전쟁시

기미제의 목적으로 건물들은 다 불타없어지고 돌기둥과 주춧돌만 남았다. 이런 건축물이 오늘 공화국의 문화보존정책에 의하여 평양민속공원에 복원되었다.

동명관의 중심은 3익공두공을 받친 높은 합각집이고 그 양옆은 낮은 배집으로 되어 있다. 강선루, 심이루, 봉래각은 아름다운 자연경치를 부감할 수 있게 밑에 돌기둥을 받친 개방적인 2층다락식

투기 폭이 넓고 T형평면으로 된 강선루, 좁고 긴 심이루는 매우 이채롭다. 폭넓은 강선루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연회를 하기 좋게 되어 있고 길게 전개된 심이루는 거닐며 경치를 감상하기 좋게 되어 있다.

본사기자 김동윤



장을 담그는 림동계절이 왔다. 예로부터 우리 겨레는 흔히 우수와 림동을 전후하여 장을 담그었다. 그때야 장이 변질되지 않고 잘 익을 수 있다. 장은 우리 민족이 오래전부터 즐겨 먹는 민족음식으로 식생활에서 기본음식의 하나이며 기본조미료이다. 된장은 여러가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썩장, 고기장을 들 수 있다. 썩장은 콩을 급하게 띄워서 만든 장이다. 고기장은 소고기, 꿩고기, 닭고기, 송어, 도미, 생복, 홍합과 같은 재료를 넣고 만든 장이다. 집장은 전 밀기울과 콩을 매주처럼 띄워서 만든 가루, 고추장은 쓰이는 재료와 만드는 방법에 따라 멧쌀고추장, 찹쌀고추장, 보리고추장, 팔고추장, 고기고추장, 약고추장, 떡고추장, 수수고추장 등이 있다. 개성고추장은 고추장가운데서도 유명하기로 소문이 났다. 우리 겨레는 예로부터 장이 좋으면 고기가 없어도 무방하고 장이 없으면 고기가 있어도 좋은 음식이 될 수 없다는 생활경험으로부터 장을 담그는 일에 정성을 많이 기울였다.

본사기자

## 민족의 향취 넘쳐나는 김치

### 전통적인 풍습 김치담그기

예로부터 림동을 전후하여 겨울철반식량이라고 하는 김치를 담그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풍습이다. 우리 선조들은 남새를 가을에 많이 저장하여 겨울철과 늦은봄까지 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창안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김치를 담그는 것이었다.

김치를 언제부터 담그기 시작하였는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3세기중엽에 편찬된 《동국이상국집》에 무우를 소금에 절여 동지에 준비한다는 기록과 남새가공품을 저장하는 《료물고》라는 것이 있었다는 사실로 보아 고려시기에 널리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우기 오늘날 같은 겨울철 김치는 《동국세시기》에 기록되어있는 사실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우리 겨레의 식생활에 이용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해동죽지》나 《동국세시기》에는 집마다 무우와 배추로 김치를 담그는데 갖, 생강, 파, 마늘,



### 겨울철 살림방의 온도를 높이려면

겨울철 방온도를 높이려면 불필요한 열손실을 감소시키고 찬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집이 두칸이상이면 정방형의 방에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 좋다. 그것은 정방형은 보온효과가 비교적 좋기 때문이다.

쓰지 않는 문과 창문은 종이나 천으로 봉해야 한다. 그것은 10%의 찬 공기가 문과 창문으로 집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문과 창문유리는 실내의 열을 밖에 전달하는 주요 경로이다. 때문에 습달

어느 한 미용원의 광고가 지나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우리 미용원에서 방금

고추가루 등을 무우, 배추에 버무려 담가서 땅을 파고 묻는 것이 가정의 1년중의 큰 일이라고 하였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겨울김치를 담글 때면 이웃들과 친척들이 한데 모여 배추를 절구고 씻는 것으로부터 양념소를 만들고 독에 날라다 넣어서 겨울철과 늦은봄까지 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창안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김치를 담그는 것이었다.

### 세계가 인정하는 조선김치

시원하고 정한 맛과 향기, 높은 영양가와 약효로 하여 조선김치는 세상사람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치에는 비타민, 단백질, 광물질, 탄수화물 등 영양 성분이 종합적으로 들어있어 협심증, 뇌졸중, 동맥경화, 암, 비만증과 같은 병들의 예방치료에 좋은 작용을 한다.

또한 김치는 여러가지 질병을 막는 강한 예방력을 가진 약효가 높은 식품으로 인정되고 있다. 언제인가 싸스가 세계에 만연되어 사람들이 공포에 잠겨있을 때에도 조선에서는 단 한명의 싸스감염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세상사람들은 조선사람들이 면역능력을 높이고 항균작용을 하는 김치를 늘 먹기때문인 것 같다고 하였다. 하여 오늘 김치는 건강장수식품으로 세

계에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조선김치의 약효성이 세상에 크게 소문나면서 많은 나라들에서 김치가 중요한 식품으로 되고 있다. 김치의 인기와 생산량이 날이 높아져 조선의 김치가 오늘은 세계의 김치로 당당히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 김치의 맛과 향기를 살리자면

조선김치의 독특한 맛과 향기를 살리려면 김치독을 잘 싸매고 김치가 국물속에 뜨지 않게 잘 손질해 주어야 한다.

김치를 독에 넣을 때 오미자나무줄기와 들깨가지 등을 일정하게 잘라 한쪽 되게 단을 만들어 깨끗한 끈으로 묶은 다음 독안에 드문드문 놓아 주면 김치의 향기가 매우 좋아진다.

김치를 담글 때 닭알집질을 깨끗한 요리용가제천에 싸서 넣어두면 김치가 시어지지 않는다. 양념을 만들 때 단원에 소금을 넣고 간을 맞추지 말고 먼저 양념감물에 일정한 량의 소금을 두는 것이 좋다. 김치는 조질일한 배추와 국물의 간이 서로 같아야 맛있게 익으므로 국물의 간은 독에 있는 김치물의 간과 거의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 좋다.

본사기자

### \* 제14차 오교국제교예축전에서 \*

얼마전 중국 하북성에서 진행된 제14차 오교국제교예축전에서 공화국의 교예배우들이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도이쉴란드, 로씨야, 메히코, 미국,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프랑스, 쿠바 등 18개 나라의 교예배우들이 참가한 이번 축전에서 체력교예 《날아라 더 높이》에 출연한 우리 나라의 배우들은 높은 난도와 재치있는 기교동작들로 공중무대를 황홀하게 장식하여 관중들의 심금을 울려잡았다.

축전에서는 우리 나라의 체력교예 《날아라 더 높이》에 축전최고상인 금사자상이, 체력교예 《철봉과 튜트그네날기》에 은사자상이 수여되었다.

축전조직위원회 성원들과 심사위원, 관중들은 장내가 떠나갈듯 한 환호와 박수갈채로 공연성과를 축하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중국 하북성 문화청 부청장 리진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선의 교예에 대한 경탄의 목소리가 하북평을 진감시켰다. 이것은 조선의 교예에 대한 찬란인 동시에 조선인민에 대한 중국인민의 친선의 표시로 된다.

로씨야 우드무르쯔야공화국 문화부장 겸 축전심사위원회 위원 드미트리 이와노

### 최고상을 받은 조선의 체력교예

브는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조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공중교예를 관람하고 조선의 창조한 미래에 대하여 다시금 확신하였다고 말했다.

중국교예가협회 부주석 리서령은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이번 축전에서 조선의 교예가 최고의 정점을 장식하고 금사자상과 은사자상을 받았다. 그 비옥한 토양은 예술의 거장이신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교예창조에 관한 사상이다.

축전심사위원회 고문 피터 듀비츠키는 조선의 교예작품에 최고점수를 준 것은 응당할 것이다. 조선의 교예는 참으로 아름답고 훌륭하다. 그것을 널리 보급하려고 한다고 강조하였다.

스위스 베베이국제영화축전 주석 겸 축전심사위원회 위원 유진 차를린은 조선은 세계공중교예의 패권을 쥐고 있다. 그것은 교예배우들을 내세워주고 이끌어주는 조국이 있기때문이다고 흥분된 마음을 피력하였다.

축전심사위원회 위원 줄리 오 네블레토는 조선의 교예작품들은 진정한 아름다움을 반영하고 있다. 사람들은 공중교예라고 하면 조선을 먼저 생각할 것이다. 공중교예에서 패권은 영원히 조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사기자

## 순결한 마음 (3)

글 주광혁, 그림 김윤일

나는 슬며시 남편의 옷소매를 쥐어 당기며 재빨리 속삭였다.

《당신은 좀 점잖게 있어요. 어쩔 예들보다 더 좋아할까.》

《어? 내가 그랬나.》 남편은 마구 날뛴 뒤 손을 확금히 마주잡으며 게면 짙은 웃음을 날렸다.

중헌반장이 림빛이 번들거리는 진한 밤빛말과 흰바탕에 희색무늬가 점점이 바친 말들을 끌어왔다.

이정반장이 아이들과 함께 말우에 올라 두레질을 하는 말을 달래는데 중헌반장은 아직도 밤빛말의 고삐를 쥐고 미타한 눈길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나네 꽤 라벌수 있겠나?》 이 물음에 아까부터 땅우에 있는 두발이 불편한듯 안달아하던 남편이 말고삐를 넣음 나누어주며 호기있게 소리쳤다.

《아니 젊 어떻게 보고 그러십니까. 이례비도 철마를 타고 온 나라 방방곡곡을 다

달리는 사람입니다.》 결사게 말우에 올라앉은 남편이 말갈기를 쓸어보기도 하고 툭툭 치기도 하면서 나를 보고 고개짓을 한다.

《자, 어서 타고. 내 오늘은 전적으로 당신만을 모시리다.》

남편의 말에 중헌반장이 혀를 내둘렀다.

《허허— 그 사람 결박이 군. 하여간 명옥이 남편만은 잘 만났어.》

경쾌한 말편자소리가 쟁쟁히 울려 퍼지자 오고거던 관람객 모두가 부러운 눈길로 우리의 일행을 올려다보았다.

《여보, 내 오늘 안해를 동물원에 데려온 이런 호사를 하는구만. 자, 3단번속이요. 떨어지지 않게 날 꼭 붙잡소. 당신의 귀머둥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지요. 짜—짜—》

물동적으로 오르내리는 남편의 잔등을 갈싸안는 나의 온몸은 부끄러움과 함께 이 림할수 없는 즐거움으로 물결쳤다.

귀적으로 스치는 바람소리와 함께 안해를 동물원에 데려온 호사를 한다던 남편의 말도 내 마음속에 차분히 안겨들었다.

지금껏 직장일로 남편과 아이들에게 미안하던 마음도 후련해지는 것 같았다.

개관리호동에 도착하니 북적거리는 사람들속에서 인철이가 신이나 떠돌아다녔다.

《이건 우리 엄마 개야요, 여기에 있는 개들이 다 우리 엄마개예요.》

남편과 함께 말에서 내리는 것 자체가 신비한데 그들이 제 엄마의 개들이라고 주제를 놓는 바람에 술한 구경꾼들이 호기심어린 얼굴로 내 주위에 성벽을 쌓았다.

내가 쇠고기를 둘러친 놀이장 가까이로 가서 이들의 말을 확인이라도 해주는 듯 잔을 돌리며, 보르텔, 라이카 등 사동안의 모든 개들이 꼬리를 저으며 그물에 매달렸다.

《야, 진짜야.》 사람들속에서 웅성이는 소리가 높아지는 속에 어느 처

너아이의 쟁쟁한 목소리가 울렸다.

《앗게 해보라요.》 나는 전형적인 세퍼드의 몸체를 갖춘 로씨야산 라이카의 이름을 불렀다.

《〈성새〉, 얏!》 《〈성새〉가 얏발을 모으고 절도 있게 얏바 환성이 터졌다.》

그다음은 언더계 해보라, 서계 해보라, 기계 해보라는

《여기에 있는 개들이 우리 엄마개예요.》 《얏는 (동일) 이고 수컷은 (영화) 예요.》

이제 겨우 어른들의 배꼽에나 미치지 못할 그레도크게 하느라 발똘똘치까지 쳐든 모습에 사람들이 웃음을

터트렸다. 저저마다 얼굴이며 뒤통수며 잔등을 쓰다듬어주시던 건 꼭 호랑이를 이긴 고슴도치상이다.

그러면 글썽 익살쟁이인 남편이 점잖게 끼어들어야

등 가지가지의 부탁들이 흥수처럼 밀려들었다.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부락들엔 어떻게 할라하는 데 현철이가 제법 자랑을 늘어놓아 주변사람들의 시선을 모았다.

《여기에 있는 개들이 우리 엄마개예요.》 《얏는 (동일) 이고 수컷은 (영화) 예요.》

이제 겨우 어른들의 배꼽에나 미치지 못할 그레도크게 하느라 발똘똘치까지 쳐든 모습에 사람들이 웃음을

터트렸다. 저저마다 얼굴이며 뒤통수며 잔등을 쓰다듬어주시던 건 꼭 호랑이를 이긴 고슴도치상이다.

그러면 글썽 익살쟁이인 남편이 점잖게 끼어들어야

《아니, 인철아. (영화)가 얏졌고 (동일)이 수컷이란다. 보름, (동일)은 사내니 이렇게 의젓하고 (영화)는 너자니까 맴시

있어.》 《얏는 (동일)이고 수컷은 (영화) 예요.》 이제 겨우 어른들의 배꼽에나 미치지 못할 그레도크게 하느라 발똘똘치까지 쳐든 모습에 사람들이 웃음을

터트렸다. 저저마다 얼굴이며 뒤통수며 잔등을 쓰다듬어주시던 건 꼭 호랑이를 이긴 고슴도치상이다.

그러면 글썽 익살쟁이인 남편이 점잖게 끼어들어야

《아니야요, 우리 아버지 윤천수야요. 그리고 오늘은 엄마생일이야요.》 나는 몸둘바를 몰랐고 남편은 어색하게 뒤수더기를 껴냈다. 그러나 사람들속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형, 우리 아버지 박사대. 박사.》 사람들속을 비집고 다니며 이들은 계속 깔깔거렸다. ...



본사기자